

## 7. 군쟁편(軍爭篇)

군쟁(軍爭)이란 군대를 동원해서 싸운다는 말이다.  
여기에서는 적과 부딪혀서 세를 몰아 기선을 잡고 싸워서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孫子曰 凡 用兵之法에 將이 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하고 交和而舍에 莫難於軍爭이니  
손자왈 범 용병지법 장 수명어군 합군취중 교화이사 막난어군쟁

손자 말하기를 용병의 법에 장수가 임금에게서 명령을 받아 부대와 병력을 모으며 적과 대치하여 숙영함에 있어서 군쟁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孫子曰 凡 用兵之法에 將이 受命於君하여 合軍聚衆하고 交和而舍에 莫難於軍爭이니

---

---

---

---

軍爭之難者는 以迂爲直하고 以患爲利라  
군쟁지난자 이우위직 이환위리

군쟁의 어려움은 돌아감으로써 곧은 길처럼 만들고, 불리함(근심거리)을 이롭게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軍爭之難者는 以迂爲直하고 以患爲利라

---

---

---

---

故로 迂其途而誘之以利하여 後人發 先人至니 此는 知迂直之計者也라  
고 우기도이유지이리 후인발 선인지 차 지우직지계자야

빙돌아 가면서 적에게 이로운 듯이하여 (적을) 유도하여, 적보다 늦게 출발하고도 더 빨리 도착하는 것이니 이는 우직지계를 아는 자이다.

故로 迂其途而誘之以利하여 後人發 先人至니 此는 知迂直之計者也라

故로 軍爭爲利오 衆爭爲危니 舉軍而爭利則不及하고 委軍而爭利則輜重이 捐이라  
고 군쟁위리 중쟁위위 거군이쟁리즉불급 위군이쟁리즉치중 연

군쟁은 유리하고 중쟁은 위태롭다. 전군(衆爭)을 이끌고 싸우면 신속성이 미치지 못하고, 정예만으로 싸우면 치중부대를 잃게 된다.

故로 軍爭爲利오 衆爭爲危니 舉軍而爭利則不及하고 委軍而爭利則輜重이 捐이라

是故로 捲甲而移하여 日夜不處하고 倍道兼行하여 百里而爭利면 則擒三將軍이오  
시고 권갑이이 일야불처 배도겸행 백리이쟁리 즉금삼장군

이런 까닭에 갑옷을 풀 정도로 빨리 이동하여 밤낮을 쉬지 않고 두배의 거리를 강행군하여 백리를 나아가 싸우면 삼장군이 적에게 사로잡힐 것이요

是故로 捲甲而移하여 日夜不處하고 倍道兼行하여 百里而爭利면 則擒三將軍이오

勁者先 疲者後니 其法에 十一而至하고  
경자선 피자후 기법 십일이지

굳센 장병만 먼저 가고 피로한 장병은 뒤에 처질 것이니 전 병력의 10분의 1정도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勁者先 疲者後니 其法에 十一而至하고

五十里而爭利면 則蹶上將軍이오 其法에 半至하고 三十里而爭利면 則三分之二至니  
오십리이쟁리 즉궤상장군 기법 반지 삼십리이쟁리 즉삼분지이지

그렇게 오십리를 나아가 싸우면 상장군을 잃기 쉬우며, 병력의 반 정도만 도달할 것이고, 삼십리를 나아가 싸우면 전 병력의 3분의 2가 도달할 것이다.

五十里而爭利면 則蹶上將軍이오 其法에 半至하고 三十里而爭利면 則三分之二至니

是故로 軍無輜重則亡하고 無糧食則亡하고 無委積則亡이라  
시고 군무치중즉망 무양식즉망 무위적즉망

이런 까닭으로 군대에 보급부대가 없으면 망하고, 양식이 없어지면 망하고, 보급물자 축적이 없으면 망한다.

是故로 軍無輜重則亡하고 無糧食則亡하고 無委積則亡이라

故로 不知諸侯之謀者는 不能豫交하고  
고 부지 제후지모자 불능예교

그리고 (인접국) 제후의 기도를 알지 못하면 미리 외교관계를 가질 수 없고

故로 不知諸侯之謀者는 不能豫交하고

不知山林險阻沮澤之形者는 不能行軍하고 不用鄉導者는 不能得地利라  
부지산림험조저택지형자 불능행군 불용향도자 불능득지리

산림이나 험한 곳, 소택지 등의 지형을 모르면 행군을 할 수 없고, 길 안내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형의 이로우를 얻을 수 없다.

不知山林險阻沮澤之形者는 不能行軍하고 不用鄉導者는 不能得地利라

故로 兵은 以詐立하고 以利動하고 以分合爲變者也라  
고 병 이 사 립 이 리 동 이 분 합 위 변 자 야

그러므로 군사행동은 속임수로써 성립되어지고, 이로움이 있어야 움직이고 분산·합격으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故로 兵은 以詐立하고 以利動하고 以分合爲變者也라

故로 其疾如風하고 其徐如林하고 侵掠如火하고 不動如山하고  
고 기 질 여 풍 기 서 여 립 침 략 여 화 부 동 여 산

그러므로 그 빠름은 바람과 같이하고, 그 느림은 숲과 같이하고, 침략은 불과 같이 맹렬히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산과 같이 하고,

故로 其疾如風하고 其徐如林하고 侵掠如火하고 不動如山하고

難知如陰하고 動如雷震하여 掠鄉分衆하고 廓地分利라  
난지여음      동여뢰진      락향분중      곽지분리

알기 어려움은 어두움과 같이하고, 움직임은 번개와 같이하고, 적의 마을에서 빼앗은 것은(병사에게) 나누어주고,  
땅을 얻어 생긴 이익도 나누어주며,

難知如陰하고 動如雷震하여 掠鄉分衆하고 廓地分利라

懸權而動하여 先知迂直之計者는 勝하나니 此는 軍爭之法也니라  
현권이동      선지우직지계자      승      차      군쟁지법야

(저울에 달아보듯이) 상황을 평가한 후에 움직이되 우직지계를 먼저 아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니 이것이 군쟁의 법칙이다.

懸權而動하여 先知迂直之計者는 勝하나니 此는 軍爭之法也니라

軍政에 曰 言不相聞故로 爲之金鼓하고 視不相見故로 爲之旌旗니라  
군정 왈 언불상문고 위지금고 시불상견고 위지정기

군의 행정서에서 말하기를, 말소리가 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징과 북을 사용하고, 서로 보이지 않으므로 깃발을 사용한다고 한다.

軍政에 曰 言不相聞故로 爲之金鼓하고 視不相見故로 爲之旌旗니라

夫 金鼓旌旗者는 所以一人之耳目也라

부 금고정기자 소이일인지이목야

대체로 징, 북, 깃발 등은 사람들의 이목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인데,

夫 金鼓旌旗者는 所以一人之耳目也라

人既專一이면 則勇者 不得獨進하고 怯者 不得獨退하나니 此는 用衆之法也라  
인기전일 즉용자 부득독진 겁자 부득독퇴 차 용중지법야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지면 용감한 자도 혼자만 나아갈 수는 없고, 비겁한 자도 혼자 물러설 수는 없으니, 이것이 병사를 다루는 용병술이다.

人既專一이면 則勇者 不得獨進하고 怯者 不得獨退하나니 此는 用衆之法也라

故로 夜戰에 多火鼓하고 晝戰에 多旌旗는 所以變人之耳目也라  
고 야전 다화고 주전 다정기 소이변인지이목야

그러므로 야간전투에는 불과 북을 많이 쓰고, 주간전투에서는 깃발을 많이 쓰는 것은 적군의 귀와 눈을 현혹시키기 위함이다.

故로 夜戰에 多火鼓하고 晝戰에 多旌旗는 所以變人之耳目也라

故로 三軍을 可奪氣하고 將軍을 可奪心이니  
고 삼군 가탈기 장군 가탈심

그리하여 적 부대 전체의 사기를 빼앗을 수 있고, 적 장군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故로 三軍을 可奪氣하고 將軍을 可奪心이니

是故로 朝氣는 銳하고 晝氣는 惰하며 暮氣는 歸라  
시고 조기 예 주기 타 모기 귀

이런 까닭으로 아침의 기세는 왕성하고 대낮의 기세는 해이해지며 저녁의 기세는 돌아가려 하는 특성이 있다.

是故로 朝氣는 銳하고 晝氣는 惰하며 暮氣는 歸라

故로 善用兵者 避其銳氣하고 擊其惰歸는 此 治氣者也요  
고 선용병자 피기예기 격기타귀 차 치기자야

따라서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왕성한 기세는 피하고, 해이하고 돌아가려 하는 기세를 치는 것인 즉, 적의 기세를 다스리는 것이다.

故로 善用兵者 避其銳氣하고 擊其惰歸는 此 治氣者也요

以治待亂하고 以靜待譁는 此 治心者也오  
이치대란 이정대화 차 치심자야

정돈된 상태로 적이 혼란할 때를 기다리고, 정숙한 상태로 적이 소란할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以治待亂하고 以靜待譁는 此 治心者也오

以近待遠하고 以佚待勞하고 以飽待飢는 此 治力者也요

이근대원 이일대로 이포대기 차 치력자야

가까움으로써 먼 적을 기다리고, 편안함으로써 수고로움을 기다리고, 배부름으로써 굶주림을 기다리는 것은 힘을 다스리는 것이다.

以近待遠하고 以佚待勞하고 以飽待飢는 此 治力者也요

無邀正正之旗하고 勿擊堂堂之陣은 此 治變者也라

무요정정지기 물격당당지진 차 치변자야

깃발이 정연한 적을 맞아 치지 않고, 진영이 당당한 적을 공격하지 않는 것은 변화를 다스리는 것이다.

無邀正正之旗하고 勿擊堂堂之陣은 此 治變者也라

故로 用兵之法에 高陵勿向하며 背丘勿逆하며 佯北勿從하며 銳卒勿攻하며  
고 용병지법 고릉물향 배구물역 양배물중 예졸물공

그러므로 용병법은 높은 언덕에 있는 적에게 달려들지 말며, 언덕을 등진 적을 공격하지 말며, 도망치는 척하는 적을 쫓지 말며, 강한 군대를 공격하지 말며

故로 用兵之法에 高陵勿向하며 背丘勿逆하며 佯北勿從하며 銳卒勿攻하며

餌兵勿食하며 歸師勿遏하며 圍師必闕하며 窮寇勿迫이니  
이병물식 귀사물알 위사필결 궁구물박

적이 주는 미끼를 먹으려 하지 말며, 철수하는 군사는 가로막지 말며, 적을 포위 하더라도 도망갈 길을 터주고, 궁지에 몰린 적을 끝까지 내몰지 말라.

餌兵勿食하며 歸師勿遏하며 圍師必闕하며 窮寇勿迫이니

此 用兵之法也니라

차 용병지법야

이것이 용병의 법이니라.

此 用兵之法也니라